

# 광주·전남 코로나 확진자 지속 발생...주말 확산 우려

### 광천동버스터미널 11명...고교 2곳서도 고3생 2명 확진 전남 함평 나흘간 13명...n차 감염 우려 함평읍 전수조사

광주에서 종합버스터미널과 콜센터 종사자에 이어 고3수험생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남에서도 함평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발생, 주말·휴일을 맞아 확산이 우려된다. 방역당국은 외출·모임 최소화와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15명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현재 기존 확진자 관련 2명, 타시도 확진자 관련 1명, 감염 경로 미파악자 1명 등 4명이 신규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770명으로 늘었다. 지난 26일 확진자 중에선 광주 광산구와 서구의 고등학교 2곳에서 재학생 1명씩 고교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들 모두가 고3수험생으로 확인돼 교육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확진 고교생 중 한명은 기존 확진자의 자녀이며, 나머지 1명은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례로 감염경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 학교의 학생, 교직원 등 1743명을 전수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동구 한 카드·보험사 콜센터에서 직원 2명이 확진돼 동료 직원 238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으며 51명은 자가 격리됐다.

광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종합버스터미널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버스터미널과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2762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매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 등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다.

광주에선 최근 불특정 다수가 다녀가는 버스터미널, 유스퀘어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선별진료소마다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시는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를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함평지역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전남에서 26일 발생한 확진자 16명 가운데 7명이 함평에 집중됐다. 함평읍 소재 의원(병원)·보험사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을 중심으로 지난 23일부터 나흘간 13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감염자들 대부분은 함평읍 소재 의원을 다녀갔거나 방문자와 접촉했던 주민들이다. 방역당국은 동네 의원이 입주한 해당 건물 일부를 폐쇄하고 소독을 하는 한편 접촉자 1700명을 검사했지만 최종 감염원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n차 감염 발생 등 확산 우려가 커지자 방역당국은 함평읍 전체 주민 5000명에 대한 진단검사에 착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촌 마을에서 잇따라 10여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감염 차단을 위한 진단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27일 오후 2시 기준, 보성지역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1437명으로 늘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어르신, 경로당 소독중입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의 경우 경로당 소모임이 가능해 집에 따라 이에 대비해, 27일 광주시 북구 중흥2동 경로당에서 구청 직원들과 자율방재단원들이 냉방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소화자매원 수녀 보금자리 광산구 삼거동에 짓는다

소화자매원에서 평생 봉사를 해온 수녀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수녀원(광주일보 4월16일 7면)이 첫삽을 뜨게 됐다.

27일 예수의 소화수녀회에 따르면 오는 6월 4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소화성가정 인근에서 전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희지노) 대주교의 주례로 숙원사업이었던 수녀원 신축을 위한 기공식이 열린다.

소화자매원은 1956년 '무등원'으로 시작해 1985년 3월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아 여성 정신 장애인들의 근근한 생활을 묵묵히 보살펴왔다.

고 조부모 신부와 함께 18명의 수녀들은 평생을 소화자매원에서 지내면서 광주지역 결핵환자·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 6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이미 정년을 한 노령의 수도자들이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호소했고, 이에 지역사회의 손길이 이어져 수녀원을 짓게 됐다.

조영대 신부는 "새로 짓게 되는 수녀원은 지친 이웃들에게 쉽고 회복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도 기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안전속도 5030' 한 달 광주·전남 사망 줄었다

4월 17일 시행 후 16명 사망...전년동기대비 13명 줄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한 달 간 광주·전남지역 교통사고 사상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2027명(부상 2011명·사망 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상자인 2320명(사망 29명·부상 2291명)에 견줘 12.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광주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었다.

정책 시행 한달 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남의 경우 지난해 778건에서 올해 729건으로 감소했으며,

광주에서는 지난해(625건)보다 많은 63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되면서 과속으로 적발되는 차량들은 증가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한달 간 과속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10만 927대로 지난해 9만 6530대와 비교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심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으로 지난 달 17일부터 광주·전남 모든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고양이 '보듬이' 학생들을 보듬다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마음건강힐링교실 호응  
함께 산책하며 정서적 안정 돕는 '든든한 직원'

광주시교육청 산하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가 진행하는 마음건강 힐링교실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센터가 기르고 있는 새끼 고양이 '보듬이'(사진)가 이용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22일부터 새끼 고양이 '보듬이'를 기르고 있다. '보듬이'는 어미 길고양이가 센터 입구에 몰려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생후 2-3주로, 감지와 저체온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직원들은 설명했다.

직원들은 즉시 동물병원으로 보듬이를 옮겨 치료했으며 수의사로부터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진단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간호했다. 직원들의 정성이 통해서인지 보듬이는 차츰 건강을 되찾아 갔다.

보듬이는 현재 센터 직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시 교육청 스텝닥터인 양혜정 전문의(조선대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는 "학생들이 동물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정서 안정,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책임감과 배려심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 대광새마을금고 창립 40주년 정기에탁금특판

# 1년 2.0% (200억한도)

## MG 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